

{ 전라북도 210選
관광스토리텔링

Tourism Storytelling

전북 테마 자원

맛과 멋, 소리의 고장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수려한 풍경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라북도

전북도청도서관



EM040202

 전라북도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전북 테마자원

발 행 일 : 2009년 10월

발 행 처 : 전라북도청

연 구 총 괄 : 최 낙 환

고증 및 사진 : 하 태 규

글 쓴 이 : 최 기 우

기획/편집/제작 : 우리디자인문화연구소
063-224-0491

제 작 : 영광기획인쇄사
063-254-2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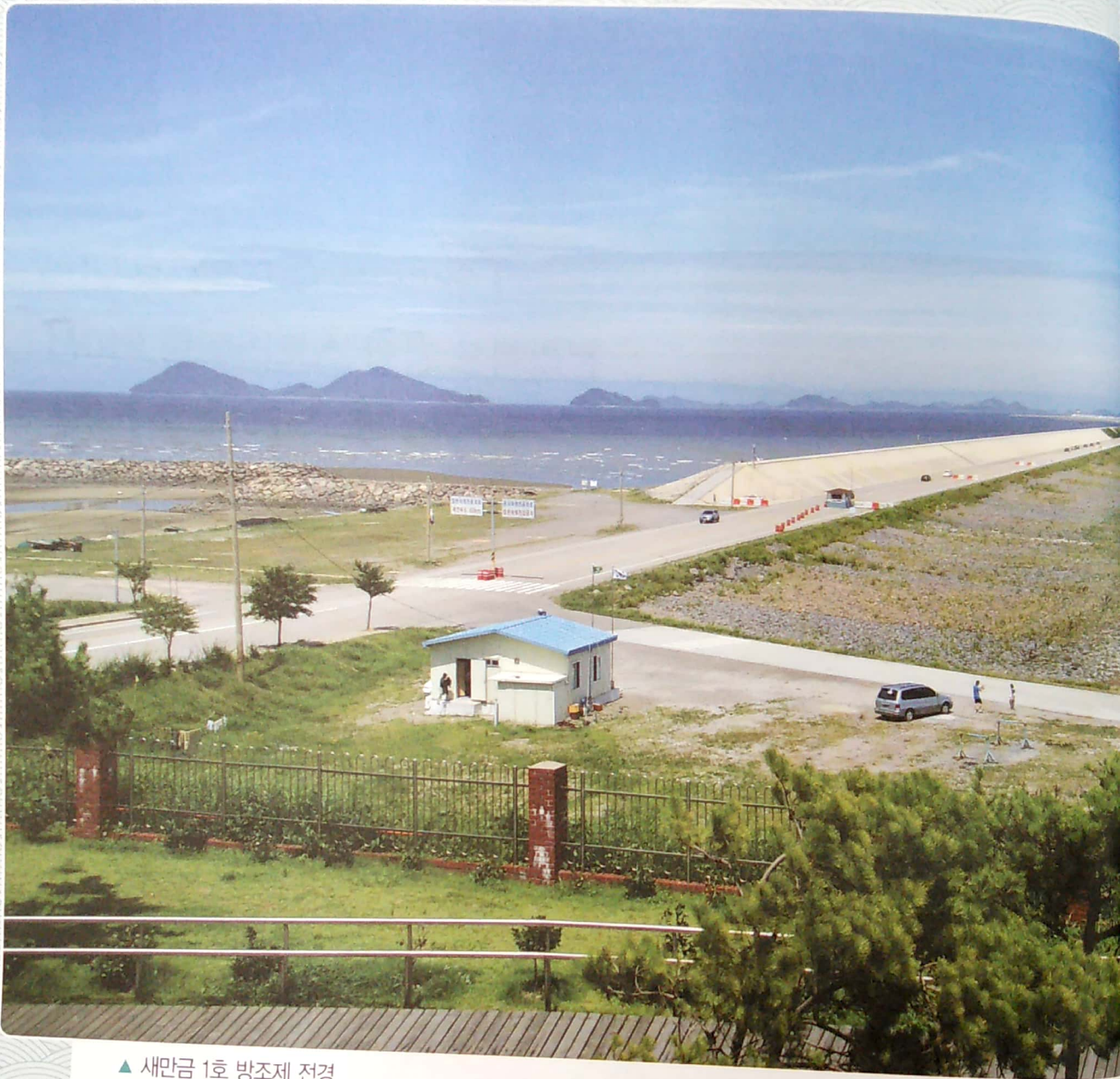
비매품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전북 테마자원

- 1. 테마자원의 개요 ● 06
- 2.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북 ● 08
- 3. 누이의 가슴처럼 포근한 섬진강 ● 22
- 4. 만경강은 흐른다 ● 35
- 5. 귀소(歸巢)하는 천리의 물길, 금강 ● 49
- 6. 5일장에서 놀다 ● 66
- 7. 전북우드의 시대, '레디 액션' ● 81
- 8. 지역의 힘과 금지, 문학관 기행 ● 98
- 9. 문학이 머무는 풍경, 시비(詩碑)기행 ● 106
- 10. 동학의 깃발, 곳곳서 펄럭이고..... ● 132
- 11. 판소리의 땅과 사람들 ● 165
- 12. 부침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의 행적』 ● 182
- 13. 일제 강점기, 수탈의 한 ● 191
- 14. 천년의 영화, 새만금 ● 207
- 15. 천주교 성지 순례 ● 218
- 16. 원불교 성지 순례 ● 236
- 17. 호수가 있는 30번 국도 여행 ● 245



▲ 새만금 1호 방조제 전경

대한민국의 희망 새만금!

군산시 비응도, 신시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의 바다를 메워 397km²의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33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형성되었고, 2011년까지 외부시설과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군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문의처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 063-280-3393



▲ 전라북도청사

1. 테마자원의 개요

전라북도 테마상품은 모두 16개이다. 먼저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는 테마여행의 개괄적 설명과 테마여행의 예를 포함했다. 전북의 4대 강 중 섬진강과 만경강, 금강은 각각 '누이의 가슴처럼 포근한 섬진강', '만경강은 흐른다', '귀소(歸巢)하는 천리의 물길, 금강'으로 자원명을 설정, 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문화유적과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다뤘다. '5일장에서 놀다'와 전북우드의 시대, "레디 액션"은 전북의 오랜 풍물인 5일장과 신 풍물인 영화촬영지를 지역별로 엮은 것이다. '지역의 힘과 긍지, 문학관 기행'과 '문학이 머무는 풍경, 시비(詩碑) 기행'에서는 문학의 깊은 역사를 가진 전라북도를 소개했다.

역사자원 중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조선왕조실록,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선정했다. 이것들은 '동학의 깃발, 곳곳서 펴력이

고...'와 '일제강점기, 수탈의 한', '부침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의 행적'으로 묶어 소개했다.

'판소리의 땅과 사람들'은 전북의 대표 문화자원인 판소리를 다룬 것인데,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소리꾼들을 지역별로 엮었으며, 고창과 전주대사습놀이를 특화했다. '천년의 영화, 새만금'은 현재 전라북도 미래비전인 새만금을 소개한 것이다. 종교에서는 천주교와 원불교를 소재로 했다. '천주교 성지 순례'와 '원불교 성지 순례'를 다뤘는데, 종교 전문 연구자들의 글을 참고했다. '호수가 있는 30번 국도여행'은 이번 테마에서 실험적으로 다룬 것이다. 전북에서는 국도를 따라가는 여행이 많지 않은데, 이 예를 통해 다양한 자원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테마자원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각 지역에서 다른 내용들과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세부자원들과 함께 보는 것이 좋으며, 각 지역의 음식과 교통 등은 첫 테마인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의 본문에서 소개되는 여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원의 명칭과 관련지역은 다음과 같다.

테마기행 자원명칭		관 련 지 역
1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	14개 시·군
2	누이의 가슴처럼 포근한 섬진강	진안, 임실, 순창, 남원
3	만경강은 흐른다	완주,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김제
4	귀소(歸巢)하는 천리의 물길, 금강	장수, 무주, 진안, 군산, 익산
5	5일장에서 놀다	군산, 부안, 고창, 남원, 김제, 진안, 정읍, 익산, 장수, 임실, 완주, 순창, 무주
6	전북우드의 시대, "레디 액션"	전주, 군산, 부안, 고창, 남원, 김제, 순창, 진안, 무주, 정읍, 익산, 장수, 임실, 완주
7	지역의 힘과 긍지, 문학관 기행	전주, 남원, 김제, 고창, 군산, 장수
8	문학이 머무는 풍경, 시비(詩碑) 기행	전주, 군산, 부안, 고창, 남원, 김제, 진안, 정읍, 익산, 장수, 무주, 순창
9	동학의 깃발, 곳곳서 펴터이고...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전주, 완주, 남원, 임실, 순창, 진안
10	판소리의 땅과 사람들	고창, 남원, 순창, 전주, 완주, 부안, 정읍, 익산, 임실
11	부침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의 행적	전주, 무주, 정읍, 완주
12	일제강점기, 수탈의 한	군산, 익산, 김제
13	천년의 영화,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장수, 진안, 정읍, 부안, 김제, 순창
14	천주교 성지 순례	군산, 부안, 김제
15	원불교 성지 순례	익산, 진안, 부안
16	호수가 있는 30번 국도 여행	부안, 정읍, 임실, 진안, 무주

전라북도 테마상품은 모두 16개이다. 먼저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는 테마여행의 개괄적 설명과 테마여행의 예를 포함했다. 전북의 4대 강 중 섬진강과 만경강, 금강은 각각 '누이의 가슴처럼 포근한 섬진강', '만경강은 흐른다', '귀소(歸巢)하는 천리의 물길, 금강'으로 자원명을 설정, 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문화유적과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다뤘다.



제주도에 가서 해녀들의 생뱀장어 먹는 것을 보거나 강진 해남에서 더빙머리 총각들이 한라산 삼신인하강 시대에 입던 때무든 옷을 입고 눈곱과 콧물을 질질 흘리며 비린내 나는 식은 생선국에 비빔밥 주는 것을 보고 “전라여자의 음식 잘한다는 말은 다 개뽕쇠가튼 거짓말” 이라 하면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약력에도 곱이 핀다고 잘못하는 곳은 잘못하지만은 대체로 말하면 전라도의 여자들이 다른 도의 여자보다는 요리를 잘 한다. 그 중에는 전주여자의 요리하는 법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맛도 맛이 어니와 상(床)배 보는 것이라던지 만드는 변태라던지 모도가 서울의 여자는 갖다가 눈물을 흘리고 조남선(潮南線) 급행선을 타고 도망질 할 것이다.

서울의 신선로가 명물은 명물이지만은 전주 신선로는 그보다도 명물이다. 그외 전주의 약주 비빔밥이며 순창 고초장, 광주 담양의 죽순채, 구례곡성의 탁주와 은어회, 고산의 식혜, 남원의 약주, 군산의 생어찜 등이 다 음식 중 명물이다. 그리고 전라도여자들은 수공(手工)을 잘한다.

특히 제주의 여자들은 갯양테망건, 어망 등의 수공을 잘하고 담양, 나주의 여자는 죽세공을 잘하고 구례, 남원의 여자는 목세공(木漆器)을 잘한다. 올치 또 한 가지 있다. 전라도여자들은 장독간 치레를 조와하여 어느 집이던지 장독간이 큰 도기전(陶器塹)가티 뵈인다. 그것은 서울여자의 마루시간 치레나 함경도 여자의 부엌 시간(例如동의, 향아리두명) 치레나 황평양서(黃平兩西)여자의 침구치레와 비슷한 일이다.(원문 수록)

전라북도에서의 발걸음은 항상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정이다. 전라북도를 거닐면, ‘서울 여자는 눈물 흘리며 급행선 타고 도망질’ 할 만큼 요리도 잘하고, 상차림도 근사하고, 수공도 잘하고, 장독 치레도 잘하는 전라도 아낙네들을 만날 수 있다.

비빔밥은 이름 앞에 전라도의 지명이 붙어야 제 맛이 난다. 선흥빛 육회와 치자나무 열매로 물들인 샛노란 청포묵에 슬쩍 데친 미



▲ 전주 비빔밥

전라북도에서의 발걸음은 항상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정이다. 전라북도를 거닐면, ‘서울 여자는 눈물 흘리며 급행선 타고 도망질’ 할 만큼 요리도 잘하고, 상차림도 근사하고, 수공도 잘하고, 장독 치레도 잘하는 전라도 아낙네들을 만날 수 있다.